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APRIL 2026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8



2026년 Golden Club 신년교례회 성황리 개최

폭설과 한파로 회원 간 교류가 적었던 병오년 초의 강 추위가 완화되던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뉴저지 Fort Lee에 위치한 Double Tree Hotel에서 80여 명 이상의 회원, 회원 가족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Golden Club 신년 교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홍종만 상임고문의 격려사가 있었고, 이어 일본 여행계획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정필 회장은 인사말을 전하며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행사 보고와 투명한 회계 보고를 했습니다. 2026년에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야외 행사와 마스터클래스 강의 등 여러 골든클럽 행사 계획과 일정을 발표했고, 새로운 만남의 검다리가 될 새 주소록 배포에 대해서도 안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골든클럽 회보 우수 원고 수상자로 김광현 회원(히틀

러가 걸었던 불세출의 길 그의 그림에 남겨진 꿈)과 조달훈·조승자 회원(무작정 베트남 여행)이 선정되어 기념 선물을 받았습니다.

축하 공연에서는 김희재, 김지유 그리고 정지인 등 음악대학 동문들의 뛰어난 클래식 규모 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아마추어 크라운의 코믹 매직쇼가 열려 모든 동문들이 유쾌한 분위기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라플 시간에는 노후 생활에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어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의 각 가정에는 골든클럽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과 팽공 강정 등이 선물로 제공되어 훈훈하게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황주리 화가의 '시소에 앉은 두 마리 말' 작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 소중한 만남으로 남을 것입니다. (글: 금영천)

2026 골든클럽 시즌 오픈 골프 대회: "필드 위에서 그리는 황금빛 우정"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에 봄기운이 차오르는 4월, 우리 골든클럽의 활기찬 에너지를 깨울 2026 시즌 오픈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Sunset Valley Golf Course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알리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곳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오며 갈고닦은 솜씨를 뽐내실 분들에게는 화려한 데뷔 무대가, 긴 동면 끝에 굳어진 골프 근육을 깨우실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코어보다 더 소중한 ****함께하는 가치****입니다. 거친 필드 위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골든라이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초록빛 필드가 부르는 소리에 화답해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 안내

일시: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Sunset Valley Golf Course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회비 : \$120

등록: 김병순 (703)407-4928 / 카톡방 회신



골든라이프 세미나: AI 시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라이프

■ [특별 세미나] 인공지능(AI), 이제 우리의 든든한 단짝입니다!

골든클럽 동문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AI(인공지능)****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이번 5월, 우리 동문이자 전문가인 ****양경호 박사(공대 83)****를 초청하여 시니어의 눈높이에 딱 맞는 '쉬운 AI 활용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비서를 두는 비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세미나 안내] AI 시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라이프

일시: 2026년 5월 7일(수) 오전 11시

장소: Hilton Garden Inn, Ridgefield, NJ

강사: 양경호 박사 (공대 83학번)

주제: "복잡한 기술은 몰라도 됩니다! 말로 하는 AI 비서 활용법"

💡 미리 보는 AI 활용 꿀팁: "검색 대신 대화하세요!"

세미나에 오시기 전, 스마트폰에 '제미니(Gemini)' 앱을 설치해

보세요. 구글 검색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검색과의 차이: 수많은 광고 글 사이에서 정보를 찾는 대신, AI는 내 질문에 요점만 정리해 직접 대답해 줍니다.

말 한마디로 해결: 글자를 치기 힘들 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씀만 하세요.

"자식들에게 보낼 다정한 안부 문자 좀 써줘"

"이 약 봉투 사진 찍었는데, 주의사항이 뭐니?"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저녁 메뉴 추천해줘"

"AI는 공부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절대 짜증 내지 않는 친절한 말동무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손주들과 소통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7일 골든클럽 2026년 신년교례



3월 23일 서울대가 자랑하는 성악가 조수미 환영만찬



3월 15일 2026 Underwood Orchestra Concert



3월 15일 언더우드 연주회에 참석한 골든클럽 회원

아침 감사 기도 (오늘을 사랑합니다)

천병수 (공대 70)

주님

이른 아침 창밖 새소리에
떠오르는 밝은 햇살에 눈을 뜹니다
잔디밭 스프링쿨러는 생명의 축가를 부르며 새 아침을 반깁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 절실히 원하였던 오늘입니다
제 마음을 비워 새로운 오늘을 선물 해 주심에 감사 기도 드립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의 빛처럼
제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대화시 끝까지 경청하며 내 자랑 하지 않고
남의 말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 주소서.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줄때는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을 지키고
또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헤아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나의 영원한 반려자, 나를 닮은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을 당신의 크나큰 은총으로 평화와 건강
을 허락 하시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아끼고 평온히 살아가게 해주소서.

제 육신이 나이들어 쇠퇴해 갑니다.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를 겸허히 당신께 가는 길로 받아 들이고
오늘이 내생에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이제까지 당신이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꺼이 당신을 찬양하고 기쁘게 당신 품에 안길수 있도록 준비 시켜 주소서.

아침이면 모닝커피 한잔에 행복해 하며
오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동네 산책도 하고
날 좋으면 지인들과 골프도 즐기고
또 카톡하며 온갖 세상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 한껏 웃어도 보고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꽃을 안겨주는 손주녀석들도 안아보고
가끔 삶이 외로워 질때는 시도 읽고 아름다운 음악에 취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것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알고
오늘 하루도 당신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소서.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다시 마주한 얼굴들,



기다리던 봄, 더 반가운 얼굴들

김영덕(공대53)

2025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를 치른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6년 3월 7일 골든클럽(Golden Club) 신년교례회를 뉴저지 포트리(Fort Lee)의 더블트리 호텔(Double Tree Hotel)에서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흐르네요. 이번 모임은 많은 동문이 참여하여 오랜만에 즐거운 만남과 담소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이었기에 다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고, 올해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습니다.

기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회장님의 인사말과 지난해 행사 보고, 그리고 투명한 회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음대 동문들의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과 즐겁고 편안한 가라오케, 빙고 게임, 장기 자랑 및 경품 추첨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띠'의 해로 열정을 갖고 힘차게 달리는 해라고 합니다. 우리 동문 모든 가정과 골든클럽이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례회 참석자 중 최고령이라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골든클럽 행사에 더 자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줄입니다.

“황금빛 대장정, 우리들의 우정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김익성 (상대 53)

지난번 골든클럽 신년교례회에서 마주했던 회원 여러분의 밝은 미소와 활기찬 에너지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기분 좋은 떨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누던 그 따스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골든클럽은 참 특별합니다. 필드 위에서 호쾌한 스윙으로 스트레스를 날리고, 땀 흘리며 정상을 정복하는 등산의 기쁨을 통해 때 순간 청춘의 설렘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치는 골프보다 함께 웃으며 걷는 라운딩이 더 즐겁고, 혼자 오르는 산보다 서로 손잡아주며 오르는 능선이 더 아름답듯, 올 한 해도 우리의 우정이라는 끈으로 튼튼하게 연결되어 서로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무엇보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필드와 산 그리고 여행지 어디에서든 여러분의 활기찬 웃음꽃이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모든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화려한 황금빛 대장정입니다. 멋진 스윙처럼 거침없고, 목직한 등산화처럼 든든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희생적으로 수고가 많으신 회장님과 임원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위를 녹인 재회의 기쁨, 함께 걷는 길이라 행복합니다”

성기로 (약대 57)

금년도 1, 2월에 찾아온 전례 없던 강추위와 폭설로 3월 7일 계획된 신년 모임에 많은 동문이 불참할까 봐 걱정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의외로 많은 회원이 동참하여 전례 없는 성대한 모임을 이루게 되어 감사한 마음 그치지 않습니다. 뽕뽕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함께 모여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며 훈훈하게 녹일 수 있었던, 어느 때보다 보람 있었던 모임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좌석 배치를 단과대학 별이 아닌 입학 연도별로 하여, 전공이 다른 동문끼리도 서로 교체하며 동창회 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진행된 순서들과 특히 음대 동문들의 작은 음악회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우리가 나누는 봄의 약속



감명을 선사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동창회장을 맡았을 때, 당시 골든클럽 회장이셨던 정택수 선배님께서 “동창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며 헌신하셨습니다. 현 회장단의 특별한 열정과 회원들의 사랑이 합쳐진다면, 우리 골든클럽은 앞으로도 놀랍게 성장하며 교포 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합니다.

**“내 마음의 강물은 흐르고,
우리들의 진주는 빛납니다”**

우규환 (사대 60)

2026년 골든클럽 신년교례회는 임원진의 세심한 계획대로 멋지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악회에서 들은 가곡 ‘내 마음의 강물’과 흥겨운 여흥 시간에 아내와 동시에 ‘빙고’를 외쳤던 행운은 골든클럽 갤러리에 즐거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비바람 모진 되서리 지나간 자욱마다 맘 아파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노래 가사를 들으며 66년 전 신입생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4.19 의거의 행동대원으로 살아온 저의 생애가 부질없는 삶이 아니듯, 이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이 회보는 동문의 결속을 강화하는 고운 진주알입니다. 이 보물이 회원뿐 아니라 뉴욕 지역 모든 동문에게 전달되어 결속을 다지는 견인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 우리가 회보 배부라는 바람을 일으키면 어떤 긍정적인 파도가 밀려올지 기대해 봅니다. 2026년 병오년, 도약하는 골든클럽을 응원합니다.



**“58년 전 미팅 사진 속 소년,
다시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순문 (사대 68)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던 겨울을 지나서인지 회원들이 서로를 더 반가워하며 벌써 봄기지를 켜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이 태동하는 봄을 맞아 문득 휴대폰 속 옛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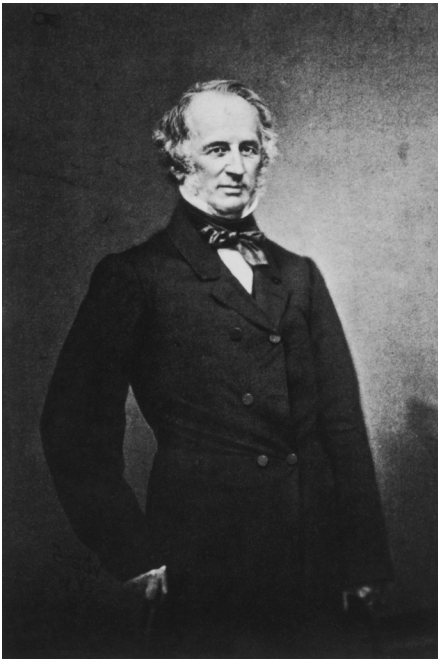
58년 전, 포마드를 바르고 ‘가다마이’를 촌스럽게 입은 신입생 시절과 일영 딸기밭에서 첫 미팅을 하던 제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장 공간은 뇌에서 컴퓨터 칩으로 변했을 지언정,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함께 밥을 나누는 ‘식구’처럼, 젊은 날의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공을 치며 답소하는 우리 관계야말로 **‘허물없는 좋은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신년교례회를 통해 60여 년 전의 기억을 공유하고, 같은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는 좋은 친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6월, 역사의 숨결 속으로 떠나는 하이킹: 밴더빌트와 루즈벨트의 재발견

이영범 부회장 (공대71)



Cornelius Vanderbilt

(들어가는 글)

6월 하이킹은 미네와스카 호수를 둘러보고 뉴욕 하이드파크 에 위치한 밴더빌트맨션 및 루즈벨트 대통령 생가 및 기념 박물관을 둘러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전에 밴더빌트와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적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밴더빌트 한번 살펴 볼까요?

(밴더빌트 가문에 대하여)

미국의 산업을 일으킨 중요한 인물을 고른다면 다음 4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밴더빌트 Cornelius Vanderbilt** → 교통(철도·해운)으로 미국 경제의 뼈대 구축 미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 산업화의 “기반 인프라” 제공
- **카네기 Andrew Carnegie** → 철강으로 산업의 재료 공급함 (강철 혁명). 철도·건물·공장 발전, 거대한 기업 구조의 모델이 됨
- **록펠러 John D. Rockefeller** → 석유산업 지배 (Standard Oil), 현대 에너지 경제의 출발점이 됨
- **포드 Henry Ford** → 자동차 대중화로 소비시대 개막 (소비 혁명). 현대 생활 방식을 바꿈

이들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꿈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고 미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린 사람들 즉 “한 산업을 지배한 수준”이 아니라 “그 산업 자체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창업자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는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로 1820년부터 증기선(페리·연안 해운) 사업으로 성공,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파산 시키는 전략으로 해운 산업을 지배하게 됩니다. 해운 사업에 성공한 그는 1850년대에 미국 철도의 운영이 여러 회사로 분리되어 있고 선로도 폭이 다르다는 약점을 파악하고 철도 산업에 뛰어들어 운수 혁명을 일으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철도, 시카고에서 뉴욕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의 작은 회사들을 인수 병합해 New York Central Railroad 를 만들어 이를 통해 환승 최소화, 운임 일원화, 운송 시간 단축으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강, 해운 산업 포함 강 → 철도 → 도시를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고 이 즈음에 미국 산업의 기폭제가 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는 북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쟁후 교육사업에도 힘을 쏟아 피폐된 남부를 재건하기 위하여 약 100만 달러 (당시 기준 엄청난 금액)를 기부하여 감리교와 협력하여 테네시주 내슈빌에 Vanderbilt University를 설립합니다.

그의 아들 **William Henry Vanderbilt**는 남북전쟁 후 산업(북부)과 남부농업(남부)을 연결하는 철도·공장·물류의 중요성 폭발하게 되고 미국이 산업 중심 국가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전국 철도망 구축하여 미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데 중요 역할을 담당하여



New York Central Railroad

철도 제국 완성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의 관문인 뉴욕 철도에 종착역 Grand Central Depot (후의 Grand Central Terminal) 건설하여 모든 노선을 이곳으로 연결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손자들 대에 이르러서는 사업뿐 아니라 사교·문화·부동산 중심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Cornelius Vanderbilt II는 뉴욕 사교계 중심 인물로 뉴포트 휴양지에 르네상스 궁전 스타일로 대리석 금장석등 유럽 왕궁 수준의 호화 여름 별장 Breakers (방 70개 이상, 1895년 완공)을 건축하여 무도회 파티를 열어 정치 사업 인맥을 형성하였으며 William Kissam Vanderbilt 는 아내의 사교계 진출을 위해 생일 선물로 뉴포트에 당시 1,100만달러 (현재 수십억달러 수준) 비용을 들여서 Marble House를 대리석 건축물로 지어 주어 이를 통해 아내 Alva가 사교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그녀는 여성의 참정권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George Washington Vanderbilt II 예술·건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저택 Biltmore Estate를 건축과 조경을 병합하여 유럽 귀족식 농장, 숲, 마을을 포함한 영지를 구현합니다.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25만 권 규모 도서관, 유럽식 예술품 수집, 개인 연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건축물 중심으로 우리 가문은 “우리가 최고 부자다 (Breaker)” “내가 사회를 지배한다. (Marble House)” “나는 귀족 처럼 산다(Biltmore Estate)”는 것을 과시하게 됩니다. 증손자대에 이르러서는 Gloria Vanderbilt 등 패션계로 진출해 20세기 패션 디자이너, 작가로 현대 문화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람할 Vanderbilt Mansion National Historic Site는 증손자인 Frederick William Vanderbilt가 1899년에 완공하였으며 이전에 설명 드린 건축물보다 규모도 작고 비교적 절제된 고급 저택으로 현재는 국립 사적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글)

1929년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위의 산업을 일으킨 중요 네 인물 “밴더빌트 → 카네기/록펠러 → 포드”로 이어지는 산업 진화는 먼저 길을 만들고, 그 위에 공장을 세우고, 대중 소비



Vanderbilt Mansion



를 폭발시키는 산업 변천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따른 대기업 집중화, 소득 불균형 그리고 과잉 생산, 금융 투기가 발생하여 대량 실업, 은행 붕괴,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호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가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를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 그리고 정부 권한의 변화, 공화당 민주당의 변천사에 대하여 알아보면 어떨까요?



Vanderbilt University

회원 명단 (108명 / 2026-3-25)

강교숙	김상만	박상원	오순문	이영범	조상근
강에드	김승호	박준구	오용호	이용대	주상선
강영선	김영덕	박희병	오인석	이위곤	주재양
계동휘	김영만	배상규	우규환	이전구	진봉일
고애자	김우영	성기로	육재희	이종대	천병수
곽선섭	김익성	손갑수	윤선구	이종석	천종화
권문웅	김정필	손경택	윤상영	이준행	최병우
권정덕	김창수	손대홍	윤재욱	이행순	최준희
홍선경	김충정	남종현	윤종숙	이흥빈	최한용
권영대	김치갑	손옥화	윤현남	임도혁	최학주
권태전	김태일	송근국	이강홍	임호순	한민우
금영천	김한홍	송웅길	이민제	전문준	한용오
김광수	김현중	송현자	이상무	정도현	한태진
김광현	노승만	송학린	이상원	정수일	한용희
김동건	노용면	송혜순	이승준	조달훈	허용웅
김문경	문 선	신두식	이 준	조승자	홍정표
김문언	민준기	신진식	이대영	정준영	홍종만
김병순	박기환	신응남	이대영	정해민	홍예경

2026년 연회비 납부 명단 54명 / \$5,400 / 2026-3-25

강에드	김충정	우규환	정해민
곽선섭	김한홍	육재희	전문준
권정덕	김현중	윤종숙	조상근
홍선경	박기환	이강홍	주상선
계동휘	박희병	이대연	천병수
권영대	배상규	이상무	최준희
금영천	성기로	이상원	최한용
김상만	손경택	이승준	문 선
김문경	손대홍	이위곤	한태진
김문언	남종현	이종대	한용희
김병순	손갑수	이행순	홍종만
김영덕	송혜순	이흥빈	홍예경
김익성	신진식	임호순	(2027)
김정필	오순문	윤상영	윤종숙

2026년 후원금 기부 명단 (22명 / \$9,500 2026-3-25)

강에드 300	김한홍 300	이상원 200	홍종만 1000
계동휘 300	성기로 400	이종대 200	
금영천 300	손경택 900	이행순 300	
권정덕 500	신진식 500	전문준 500	
김문경 300	오순문 200	정해민 1400	
김영덕 100	우규환 200	최준희 300	
김정필 300	이강홍 500	최한용 500	

2026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행사 2026

2월	12일(목)	Talk show (Hilton Garden Inn) 23명 참가
3월	7일 (토)	신년교례 (Double Tree Hotel) 75명 참가
4월	2일(목)	Masterclass 2강 이길주 교수
	23일(목)	골프대회
5월	7일(목)	Masterclass 3강 AI 비서 만들기
	21일(목)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6월	11일(목)	피크닉 (Minnewaska State Park)
	25일(목)	골프대회 Walkill
7월	9일(목)	Masterclass 4강 유산상속
	23일(목)	골프대회 Meadows
8월	20일(목)	골프대회
9월	24일(목)	골프대회
10월	15일(목)	미네와스카 단풍관광
	22일(목)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11월	5일(목)	골프대회
	1-10	일본여행
12월	5일(토)	뉴욕동창회 송년회
		골프여행

4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박상원 (음대69)
- 성기로 (약대57)
- 오인석 (법대58)
- 진봉일 (공대50)
- 홍지복 (간호70)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과 바뀐 내용만 적어주세요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연회비 \$100
단과대	학과	입학연도	후원금(\$)
전화번호	이메일		입회비 \$200
주소			